

국립공원 안전장비 무료 대여,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

- 올해 내장산 및 가야산 등 8개 추가... 전국 20개 산악형 국립공원서 시행

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(이사장 주대영)은 ‘국립공원 안전장비 무료 대여’를 전국 20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안전장비 대여는 준비 없는 산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화, 등산스틱 등 안전산행에 필수적인 9종의 장비*를 탐방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국민체감형 안전서비스 제도다.

* 품목: 등산화, 등산스틱, 배낭, 무릎보호대, 응급키트, 방석, 안내지도, 아이젠, 핫팩

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 북한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전장비 대여를 시작했으며, 2024년에는 ‘공공기관 대국민 체험형 서비스(재정경제부)’로 선정되어 계룡산, 팔공산 등 도심권 6개 공원으로 확대했고 지난해(2025년)에는 지리산 등 6개 공원이 추가됐다.

올해(2026년) 5월부터는 안전장비 대여를 △내장산, △가야산, △주왕산, △소백산 △월출산, △변산, △태백산, △금정산(7월 중 대여) 등 총 8개 공원을 추가하여 전국 20개 산악형 국립공원, 27개 사무소에서 안전장비를 대여한다.

한편,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북한산, 지리산 등 12개 산악형 국립공원에서 안전장비 대여 실적을 분석한 결과, 총 6,600건이 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여 품목으로는 보행에 도움을 주는 ‘등산스틱’의 대여 비율이 28%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겨울철 미끄럼 예방을 위한 ‘아이젠’의 대여 비율이 19%를 차지했다.

특히,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대여 실적 집계 결과, 북한산 등에서 158건의 외국인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, 올해는 외국인 탐방객들을 위해 ‘외국인 전용 안내 체계’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. 대여 현장에 영문 안내문 및 홍보물을 확충하는 한편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를 통한 맞춤 홍보를 병행하여 외국인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.

안전장비 대여는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, 사용 후 당일 반납해야 한다.

대여장소 등 세부 내용은 ‘국립공원공단 누리집(www.knps.or.kr)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“안전장비 대여가 전국 산악형 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비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, “탐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안전장비 대여 서비스(포스터).
 2. 안전장비 대여 현황사진.
 3. 2025년도 12개 산악형 국립공원 안전장비 대여 실적. 끝.

담당 부서	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	책임자	부 장	이지형 (033-769-9581)
		담당자	과 장	전국선 (033-769-9586)



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
안전산행하세요!



국립공원 안전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 확대 운영

확대 운영기간 2026년 5월 ~

운영공원 20개 전 산악형 국립공원(금정산은 7월 중 실시)

대여장비(9종) 등산화, 등산스틱, 배낭, 무릎보호대, 응급키트, 방석, 안내지도, 아이젠, 핫팩

대여방법 현장방문(선착순)

※ 세부 대여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(www.knps.or.kr)
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


사진설명: 안전장비 대여 서비스 운영장소 사진



사진설명: 안전장비 대여 서비스 운영

붙임 3**2025년도 12개 산악형 국립공원 안전장비 대여 실적**

□ 공원별 서비스 운영 실적

[단위: 건]

계	안전장비 대여 현황(건)											
	지리	경주	계룡	설악	속리	덕유	오대	치악	월악	북한	무등	팔공
6,600	101	204	947	379	13	131	48	107	31	3,712	615	312